

HRI 체어퍼슨노트

CHAIRPERSON NOTE

2011.10.17 (통권370호)



경제이슈

스페인, 신용등급 강등

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

경영노트

신사업 발굴의 원칙

사회 트렌드

내년 지구촌은 대선의 해

저널 브리프

낭비를 줄이는 기업의 전략 4가지

洗心錄

과(過)는 자신에게 공(功)은 모두에게

□ 스페인, 신용등급 강등

-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와 스탠다드 앤 푸어스(S&P)는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
 - 스페인 신용등급 강등 : 10월 7일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두 단계 강등한데 이어 10월 14일 국제신용평가사 S&P도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
 - 신용등급 강등 배경 : 피치와 S&P는 스페인 신용등급을 강등한 배경으로 스페인의 높은 실업률, 높은 수준의 국가부채 등을 제시
 - 유럽 주요은행 연쇄 강등 : 또한 피치는 스위스 최대은행인 UBS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한데 이어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뱅크의 신용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
- 유럽 주요국가와 은행들의 신용등급이 연쇄 강등되며 유럽 재정위기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11월 초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유럽 재정위기 해법에 관심이 집중

□ 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

- 미국의 상·하원 본회의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이 10월 12일에 통과
 - 한·미 FTA 추진과정 : 2007년 6월 한·미 FTA협상 정식 서명 이후 2010년 12월 추가 협상 타결로 양국의 비준 절차 본격 시작, 2011년 10월 12일에 미국 상·하원 본회의를 통과
 - 거시경제 효과 : 기획재정부¹⁾에 따르면 한미 FTA로 향후 10년간 실질 GDP는 최대 5.7% 증가, 일자리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총 35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
 - 산업별 효과 : 산업에서도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 순으로 흑자가 증가하여 연간 \$30.3억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 전망
- 한국은 미국과의 FTA 체결시 경제적 효과 뿐만 아니라 국가 신인도 상승, 국제적 위상 강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농축산업 및 제약업 등 일부 산업에 피해가 예상되므로 대책 마련 필요

1) 기획재정부,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재분석 2011. 8. 5

□ 신사업 발굴의 원칙²⁾

- 외부 환경의 변화는 현재의 사업에는 위협이 될 수 있지만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될 수 있으나 기회를 포착하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함
 - 20세기 중반 여객기의 등장으로 여객선 업체 대부분이 사라지는 동안 크루즈 관광의 수요를 포착한 일부 업체들은 오히려 성공을 거두었음
 - 기회를 놓치는 주요 원인은 객관적 정보를 통해 자신의 현 상황은 정당화하려는 반면 위기나 도전 과제서는 무시하려는 인간 심리에 있음
- 상당수 후발 주자들은 이미 신사업 기회 발굴 원칙의 대부분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실행하지 않고 사업 기회를 놓친 뒤에 후회하게 됨

< 신상품 발굴의 10대 원칙 >

	내 용
이미 존재해야 하지만 아직 없는 상품	• 1990년대 초 Kate Brosnahan은 가방 시장에 저가의 기능성 가방과 고가의 패션 가방만이 존재함을 인지하고 기능성과 패션을 결합한 가방 브랜드 Kate Spade를 설립
소비자를 불쾌하게 만들고 있는 상품	• 지나친 비디오 대여 연체료에 짜증난 Reed Hastings는 스스로 Netflix를 설립하고 연체료와 대여기간의 제한을 없앴
제공 가치에 비해 가격이 낮은 상품	• 인도의 IT 서비스 기업 Infosys Technologies는 자국 노동력의 높은 기술과 낮은 임금을 활용하여 전세계에 아웃소싱
기존 기술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상품	• Hira Thapliyal은 본래 심장 수술 기술인 코블레이션을 개발했으나 보다 시장 규모가 큰 디스크 수술에서 더 크게 성공
어디에나 있을 것 같은데도 없는 상품	• Ray Kroc은 캘리포니아 남부에 위치한 작은 햄버거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맥도널드를 설립하여 전국에 체인을 확장
소비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상품	• 중국 가전업체 하이얼은 농촌에서 세탁기로 과일을 씻는다는 점에 착안해 과일을 세척해도 고장 나지 않는 세탁기를 개발
구매하기 싫어도 구매해야 하는 상품	• 혼다는 1950년대 미국 오토바이 시장에서 유일하게 소형 모델을 판매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확장하고 시장 진입에 성공
소비자 스스로 개발해 사용하고 있는 상품	• 정형외과 의사 Kevin Stone은 환자들이 관절 부위의 통증에 진통제 대신 글루코사민을 먹는 것을 발견하고 먹기 쉬운 글루코사민 물약을 개발
어디서든 잘 팔리는데 여기에는 없는 상품	• 1990년대 초 스웨덴의 학생 Carl August Svensen-Ameln은 미국 유학 기간 동안 짐을 보관할 개인물품보관소를 찾았으나 유럽 전체에 이런 서비스가 없음을 알고 스스로 회사를 설립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상품	• IB 1위 기업인 Goldman Sachs는 1970년대 이전까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브로커리지 사업을 기피했지만 다른 IB의 브로커리지 수익이 의외로 높은 것을 보고 사업을 시작

2) 본 자료는 Booz & Company strategy+ business의 '10 Clues to Opportunity(2011. 9)'를 요약 정리함

□ 내년 지구촌은 대선의 해³⁾

■ 우리나라 18대 대선이 실시되는 내년은 전 세계적으로도 리더십이 격변하는 ‘글로벌 정권 교체’의 해임

- 2012년 대선을 치르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29개국에 이릅니다
- G20 국가만 따지더라도 우리나라와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인도, 터키 등 6개국에서 건거를 통해 국가 지도자를 새로 선출하게 됨

■ 주요 대선

미국 (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 연임 가능, 3선은 금지 · 간접선거제를 채택, 각 주에서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이 선거인단이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음 · 11월 6일에는 각 주의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투표가 실시됨. 50개 주 가운데 48개 주에서 득표수가 한 표라도 많은 당이 그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 전체를 차지하는 이른바 ‘승자 독식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선거인단 선거에서 대통령이 결정
러시아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선거로서, 임기 6년에 연임 가능하지만, ‘3연임’은 금지(횟수 제한 없음) ·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15일 이내 2차 결선투표 실시 · 이미 연임으로 두 차례의 대통령 임기를 지낸 푸틴 총리가 2012년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가능함
인도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기 5년이며, 국민을 대표하는 선거인단이 간접선거로 선출 · 선거인단은 양원과 주의회 의원들 가운데 뽑음
대만 (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 임기의 대만 총통은 직접선거로 선출 · 선거권이 대개의 국가가 18세 이상인데, 대만만은 20세 이상임
멕시코 (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년 임기로서 직접선거로 선출 · 2012년에는 대선과 총선이 함께 치러지며, 선거권은 18세 이상
터키 (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임기로서, 직접선거로 선출 · 대통령후보가 되기 위한 자격이 엄격한데, 국회의원으로서 동료 의원 20명 이상의 지지를 얻거나, 직전 총선에서 10% 이상의 득표를 한 정당이 내세운 후보만 입후보가 가능
프랑스 (4/22, 5/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중임제, 직접선거 · 4월22일의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5월 22일 결선투표 실시 · 2012년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름. 선거권은 18세 이상

3) “내년 지구촌은 대선의 해”, 중앙일보, 2011.10.17.

□ 낭비를 줄이는 기업의 전략 4가지⁴⁾

■ 경제 침체가 현실화되면서 비용 절감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아래 4가지의 비용 절감 방안을 실행해볼 수 있음

① 지정좌석제를 버려라

- 사무실 내 개인 공간은 실제로 개인이 필요한 공간보다 넓은 경우가 많아 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
- (사례) 美 가정의료서비스 제공업체인 Nurse Next Door社는 기존의 지정좌석제를 없애고 먼저 온 사람이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결과, 직원 수를 28명에서 45명으로 늘리면서도 사무실 규모를 줄이는 데 성공(임대료 6만 달러와 IT 인프라 비용 4만 달러를 절약)

② 빨리 팔아 치워라

- 상품이 창고에 쌓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판매에 나서는 경우 상품 보유 기간이 길어져 보관비 등의 관련 비용이 늘어나게 마련임
- (사례) 美 중고차 업체인 Driversselect社는 중고차를 경매에서 구입함과 동시에 웹사이트에 올림으로써 중고차가 회사에 머무르는 기간을 44일에서 36일까지 줄이고 보험료와 보관비 등 관련 비용을 한 달에 1만 4,4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음

③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하라

- 케이블 수신 요금 등 일상적인 비용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협상의 여지가 존재함
- (사례) 댄스 교습 업체인 Cherry Creek Dance社는 케이블 수신요금 등의 매월 내야 하는 공과금이 너무 비싸다고 느끼고 거래업체에 좀 더 싼 요금을 요구한 결과, 매월 발생하는 비용 중 1,650 달러를 절감하는데 성공함

④ 클라우드 컴퓨팅을 시도하라

- 다수의 경영자들이 데이터 보안 문제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꺼리고 있으나 보안체계만 잘 갖춘다면 클라우드 컴퓨팅은 효과적인 비용절감 전략임
- (사례) 번역 업체인 Choice Translating社는 클라우드 컴퓨팅 구축을 통해 서버 일곱 곳과 방화벽 두 개를 없애 IT관련 비용 중 1만 5,600 달러를 절감하고 추가적으로 저렴한 백업 비용, 전기세 절약 등의 부가적인 이득도 얻을 수 있었음

4) 「5가지 새로운 절약 전략」(Fortune Korea, 2011.10) 참조

□ 과(過)는 자신에게 공(功)은 모두에게

한 기업을 이끄는 최고 경영인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자질은 기업이 속한 사회,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공통적으로 상위에 들어가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조건으로 과실(過失)은 자신이 지면서 성과(成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일종의 겸양(謙讓)의 자세라는 데 대해 큰 이견은 없을 것이다. 물론 이는 객관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다.

스웨덴 찰머스(Chalmers)대학교의 경영학과 교수 프레드버그(Fredberg, Tobias) 등이 바로 그 주역이다. 2011년 9월에 펴낸 「Higher Ambition: How Great Leaders Create Economic and Social Value (높은 야망: 어떻게 위대한 지도자들이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는가?)」란 제목의 책에서 이들은 훌륭한 CEO들이 공(功)앞에서 자기 자신들보다 남을 더 앞세우는 겸양의 미덕을 부지불식간에 실천하는 사람들임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미국과 유럽에서 주요 기업의 CEO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CEO들이 문장의 주어로 “I(나)”또는 “We(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해당 기업의 실적과 무관치 않음을 발견하였다.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의 CEO일수록 “I(나)”로 문장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고 반대로 실적이 좋은 기업의 CEO일수록 “We(우리)”로 운을 띄우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프레드버그 교수 등은 좋은 CEO들은 그들이 아래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부하직원들이나 주주들의 신뢰를 얻는 데 있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추가하였다. 그들은 지도자가 되려면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조직을 이끌 끈기와 능력을 갖고 부하 직원들의 불안감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근본적인 이유로 들었다. 곧 과실(過失)을 모두에게 지우는 지도자는 해당 기업의 궁극적인 책임자가 자신임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아랫사람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이들이 맡은바 업무를 자신감을 가지고 처리할 가능성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현대를 감성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다. 세계가 애플에 열광하는 것은 소비자의 감정에 충실한 제품과 기술을 선보였기 때문이다. 그 CEO이었던 스티브 잡스의 생애 또한 우연치 않게 감동적이었다. 아무리 CEO가 공(功)을 모두에게 돌려도 부하 직원들은 누구의 역할이 컸는지를 잘 안다. 아무리 CEO가 과(過)를 혼자 짊어져도 부하 직원들은 또한 누구에게 진정된 책임이 있는지 잘 안다. 이렇게 누구나 잘 아는 공과(功過)의 소재를 정확히 가려 따지고 묻는다면 해당 CEO의 날카로운 이성이 요구하는 바를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을 감동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할 것이다.

부하 직원들을 감동시킬 수 없다면 세상 또한 감동시킬 수 없을 것이다. 세상을 감동시킬 능력이 없는 기업이 감성의 시대에 가장 시대에 뒤쳐진 기업이 되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오랫동안 그 꿈을 그리는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간다.

- 앙드레 말로(1901~1976) : 프랑스의 작가, 정치가